

美國 高等敎育의 研究動向

李 鉉 清

(釜山大 敎育學科)

후기 산업 사회 혹은 미래지향적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은 高等敎育의 탁월성과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근래 대두되고 있는 보수주의적 경향과 급진적 교육이데올로기의 갈등은 高等敎育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음미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序 論

근래 敎育의 기능, 특히 高等敎育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高等敎育이 주로 社會的 統制의 기능으로서 강조되었던 '50~'60년대나 社會技術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人力開發의 기능으로 강조되어 오던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 미국 高等敎育의 연구 등향은 전반적인 敎育의 위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敎育의 위기는 주로 전반적인 敎育, 특히 高等敎育이 담당해 왔던 社會的 통제나 人力選拔의 기능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혁신 때문에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그 주요한 이유를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變化에 적응키 위한 基礎敎育(back to basic)의 강조라든지 전문인 양성 敎育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편 문제라든지 대학敎育의 意

味와 評價의 문제 등과 관련한 大學敎育의 役割 전반에 대한 논란 등이 부수적인 이유라 하겠다.

高等敎育에 관한 研究方法論의 측면 또한 종래의 量的 方法論(quantitative methods)에만 치중해 왔던 경향과는 달리 質的 方法論(qualitative methodology)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歷史病理學的 觀點에서도 高等敎育의 문제를 규명하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래의 미국 高等敎育의 研究動向을 살펴 보면 한마디로 '高等敎育의 탁월성'에 주된 관심을 두어 그 사회적 기능을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대체로 몇 가지 흐름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高等敎育機關의 운영 관리, 총장—이사회—교수간의 役割 設定과 관련된 문제, 高等敎育기관에서의 소수민족(minority)의 문제, 人口變動에 따른 高等敎育의 變化에 따른 문제, 敎師敎育의 革新 및 재정비 문제, 전문인으로서의 敎授의 非道德性과 관련된 쟁점, 專門大學의

당면 과제와 편·전·입학 문제 등의 관심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 영역들로서는 대체로 高等教育 行政이나 高等教育의 社會的 體制와 더불어 教授過程 評價에 이르기까지 多様な 關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주요 쟁점으로는 大學 커리큘럼의 효율적 統合問題와 學習者 자신의 학습에의 介入(learner's involvement)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하나 주목해야 할 연구 동향은 專門人 養成教育과 관련된 專門人養成大學(professional school) 교육의 질 관리 문제와 관련한 경향이다. 특히 증진과는 달리 학위 취득 후 專門人으로서 사회봉사를 할 때 이들의 업무 수행이 질적인 면에서 충분히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次期 캐리어(later careering)에 관한 것이다. 때로는 '미래고등교육학'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기도 한다. 따라서 근래의 高等教育 研究動向은 주제면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 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방법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美國의 高等教育 研究動向의 주된 흐름을 살펴 보고 이를 몇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高等教育의 연구 동향

미국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은 주된 관심과 연구 방법론의 적용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등교육의 保守的 機能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이고, 둘째는 非制度的 高등교육 혹은 대체적 고등교육(alternative higher education)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며, 다른 한 경향은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高等教育과 産業體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 동향이다. 어떠한 경향에서든 공통적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高等教育의 質'에 대해 검증해 보려 한다는 점과 경직된 커리큘럼보다는 혁신적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하나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근래 들어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 현저하

게 강조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질적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高等教育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볼 때 고려할 요인으로서는 상호 복합적 요인들이기는 하나 教育에 대한 社會 認識度, 社會·技術變動, 職業構造, 教育體系, 價值構造 및 學習資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현재 미국 고등교육의 研究動向을 살펴 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學習資源과 社會變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학습 자원은 앞서 지적된 바 있는 保守的 傾向뿐만 아니라 다른 두 경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학습 자원이란 단순히 재정적 측면이나 교육 보조 자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인적 자원과도 관련을 갖는다. 요즘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研究와 관련한 大學 教授(college teaching)의 質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고등교육의 주된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수적 기능을 강조하는 접근들은 어떤 경우든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教養教育과 基礎教育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접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基礎科學教育, 예컨대 물리, 화학, 수학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人間性을 함양할 수 있는 基礎教養教育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효율적인 학습 또는 커리큘럼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게 되며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이러한 教育過程의 운영에 필요한 학습 자원 개발에 주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大學院教育의 강화, 학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入學前 教育(中等教育)의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학부 과정에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학생의 질을 학부 입학 전부터 관

리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학생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教師教育의 강화를 통해 교사의 질도 아울러 증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1983년의 '국가적 위기(a nation at risk)'에 대한 보고서가 미국 교육개혁의 新바람을 불러 일으킨 이후 9,000여 개에 달하는 이와 관련된 부수 연구들 또한 大學教育의 질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질'의 연대적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좋은 예로서 美國의 50개 주요 사범대학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홀스그룹(Holmes group)'을 지적할 수 있다. '미래의 교사(tomorrow's teachers)'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 이 그룹은 교사교육의 강화와 사범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위 '교육의 탁월성(excellence in education)'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주로 中等教育과 관련된 교육의 탁월성 문제를 중시하여 中等教育 전반에 걸쳐 논의되었다. 따라서 보수적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80년대 초 고등교육 연구 동향의 한 조류 또한 '고등교육의 탁월성'에 관한 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라 분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고등교육 체제나 프로그램에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고 학습자나 교수간의 효율적 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자원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탁월성에 관한 검토 분석이 주로 학교 조직과 학습량 및 교사의 질에 관한 것인데 반해서 高等教育의 質과 관련한 이 研究動向은 基礎敎養教育과 專門教育과의 關係 定立, 大學院教育의 役割, 高等教育의 社會的 機能, 高等教育의 국가 발전이나 경제 개발과의 關係 등의 관점에서 이를 分析 검토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에찌오니(Etzioni)(1982)가 지적한 바대로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新低發展國家(new under-developing nation)'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저개발 국가는 교육 기능의 부분적 상실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이 정체되며 따라서 개발이 저해 내지 퇴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기능의 부분적 상실은 교육 전반에 걸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 주요 책임의 일부분이 高等教育의 실패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수적 기능을 強調하는 고등교육의 研究動向은 ① 교양기초교육의 강화, ②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인 양성 교육의 달성, ③ 교육 자원의 大學教育으로부터 初·中等教育에까지의 교육과정의 연계 활용, ④ 인간성 함양과 관련된 예능 및 취미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교양과정(프로그램 설정), 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과 사범교육의 전반적인 개혁 등에 주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高等教育의 質을 향상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동향의 일환으로서 주로 고등교육의 평가에 대한 문제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효율적인 연계에 관한 검증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 기능과 관련된 또하나의 주요한 연구 동향이라 할 수 있는 점은 '國力培養을 위한 高等教育'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배경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국가 발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世界 主要 先進國家들의 學力이나 연구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등의 차원에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노력들은 고등교육의 국가 발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롯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비교 연구와 실증적 경험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여 수준을 검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특히 국가 발전과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조나 '국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은 교육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새로운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50년대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목적과 내용-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단순히 고급 인력의 선발 분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최근의 동향은 사회 체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Kerr가 지적한 바대로 대학이 'multiversity'로서의 복합적 특성을 지녀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전통적 관점과 진보혁신적 관점을 수용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대개 2년제 대학에서 교과과정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 영역¹⁾과 4년제 대학에서 다루는 최종 커리큘럼(terminal curricula)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나 하는 문제가 좋은 예라 하겠다.

흔히 근래 '85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교육의 새로운 동향이라 할 수 있는 '4R'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新機能主義(new functionalism)의 경향 또한 국가 발전과 고등교육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연관성이 있는 동향이라 할 수 있다.

'4R' 운동이란 198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의 동향으로서 종래의 '3R'에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개혁의 의미 'R'을 추가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혁 전반에 관련된 탁월성과 '교육권리'를 내포한 개념인데 이것을 필자는 '교육인권(educational right)'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 '4R' 운동은 탁월성과 학습자의 '교육인권'과 연관된 동향인데 고등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²⁾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譜分野에서의 수월성의 성취를 위해서는 고급 인력과 사회봉사 및 혁신 개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교육의 의미와 목적이 더 더욱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 및 국가 발전의 상관 관계를 究明하려는 노력이 보수적 연구 동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과 관련하여 대학의 구조나 리더십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

과 같은 학문기관은 대개 이중 위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위계, 즉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을 위한 체제와 이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行政體制로 양분된 고등교육기관의 개혁은 고등교육의 질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결국 국가 발전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新傾向으로서 앞서 제시한 新機能主義 또는 후기기능주의(neo-functionalism)³⁾적 흐름은 교육의 보수적 기능과 연관된 연구 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하겠다. 신기능주의 경향은 종래의 급진주의적, 갈등론적 견해에 대한 代案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新機能主義 교육이데올로기와 관련한 高等教育의 연구 동향은 근래의 新社會思想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보다 국가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첨단 기술인력 확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人力資源開發과 發展敎育論的인 관점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전공 영역의 재조정(확대나 축소), 교육 자원의 지원 방안, 교수의 질 관리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投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國家經濟 및 社會的인 기여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는 경향이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된 바대로 高等教育의 사회적 기여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무엇인가에 대해 分析해 보려는 高等教育의 產出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產出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경제 성장과 고용의 문제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근대화 개념이 갖는 사회 발달 및 사회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動向은 非制度的 高等教育 또는 '대체적'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로서 비제도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라 할

- 1) 흔히 전이 커리큘럼(transfer curricula)이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서 4년제 대학의 개설 강좌와 연계가 용이한 영역이다.
- 2) 이러한 '4R' 운동은 교육 분야와 심리학 분야에서 '제4 세력'으로 주창되고 있는데 Transpersonal Psychology 라든지 思考力 開發을 위한 노력들이 이러한 동향에 속한다. 이러한 傾向은 지금 초기 단계이므로 필자는 이러한 탁월성과 관련된 경향을 '교육인권'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고 있다.
- 3) 신기능주의(new functionalism) 또는 후기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필자의 용어로서 근래 대두되고 있는 신보수주의, 신국가주의, 신경제주의 등과 연관된 새로운 교육이데올로기이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동향은 흔히 '70년대 초에 등장되었던 脫學校理論 등을 비롯한 급진주의적 성향과는 달리 高等教育 학습자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傾向이다. 물론 일부 견해들은 제도적 고등교육의 기본 태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주된 흐름은 '제도 속의 비제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開發性向이다. 이러한 기존의 大學이나 고등교육기관의 모델 위에 보다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전체적 흐름과 대조되는 경향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일부 견해들을 제외한다면 학습자의 교육 의지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 보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학습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보다 유익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경험 중심 학점 이수 프로그램, 협동 이수 프로그램, 현장 중심 학점 이수 프로그램, 외국 대학과의 協同 프로그램, 自發的 學習 프로그램, 問題中心學習 프로그램(problem-based learning), 脫專攻 전대학 설강 과정(university credit program), '2 plus 2' 프로그램, 獨立 이수 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program), 매체 교육 프로그램, 현역 군복무자 학점 이수 프로그램(military program) 등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대체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의 동향은 다분히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平生學習體制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 볼 수 있다. 이미 序論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의 고등교육은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위기적 국면에 있다. 우선 인구 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교육의 양적 팽창은 다분히 베이비 붐 세대(baby-boom generation)의 영향에서라고 볼 수 있다. 역사병리학적 방법론을 통한 연구들은 대개 교육의 사회병리현상적 측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은 대개 교육 기능의 상실뿐만 아니

라 大學教育의 逆機能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가 심각한 때문이다. 근래 이들 베이비 붐 세대들이 특히 고등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미국 고등교육의 장래와 연관지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즉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나 고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을 일시적이라 보는 이유는 기술 변화와 지식의 폭발에 따라 성인 세대가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흔히 대학을 '성인 캠퍼스(adult campus)'라 지칭하기도 하고 '성인대학(androversity)'이라 부르는 뜻을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⁴⁾ 그러므로 비제도적 고등교육 연구 경향은 앞서 언급한 인구·사회 및 직업구조상의 커다란 변모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캠프(Kemp, 1983)에 의하면 근래의 고등교육에서의 이러한 변혁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비제도적 프로그램의 증가율이 77%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종래의 위계적 또는 수직적(linear life plan) 관점에서 융합적인 관점(blended life plan)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대학 인구의 특성이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러한 고등교육 학습자들의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살펴볼 때 아주 多樣的 배경과 보다 복합적이고도 상이한 학습자의 교육 욕구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學習者中心의 多樣的 프로그램 설정과 보다 유연성 있는 高等教育體系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의 高等教育에 관한 研究動向의 한 흐름이 學習者中心의 高等教育體制開發과 自我主導的 學習(self-paced learning) 모델 개발에 있다. 이러한 비제도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관련된 연구 동향은 고등교육을 전통적 관념에서 보아왔던 시각과는 달리 교육목표, 커리큘럼, 고등교육 평가 및 體系面에서 보다 진보적 견해를 提示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지나치게 설명한다면 단지 고

4) 필자가 성인대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學習 이론의 측면에서도 성인교육학(andragogy)이나 노년교육학(gerogogy)이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대학의 본질면에서도 장래의 대학은 다분히 andro-versity의 특성을 지닐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등교육기관에서 설정한 이수 과목을 설정된 커리큘럼에 국한하여 지정된 강의실에서 이수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급진적(radical) 교육이데올로기 보다는 인간주의적(humanistic) 학습자 중심 교육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분히 제도적이건 비제도적이건간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데올로기를 주관심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복지와 학생 선발 제도, 입학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 등에도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의 본질과 特性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學生福祉와 學生選拔 및 學事 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대학들의 학생 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연령이 많은 학생들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적령기의 대학생 인구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고등교육을 수학하는 학생들의 본질과 특성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과 변화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른 대책을 위한 연구가 주된 傾向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근래 대두된 교육에서의 '소비자' 개념(consumer concept)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연구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보다 유연하고 비제도적인 교육과정을 설정할 때 수반되는 '질' 관리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무형식적 프로그램을 학습자 중심으로 설정할 경우, 질 관리 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기 마련인데 비제도적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교육의 탁월성에 주관심을 두어 대체적 課程과 대체적 학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평가 문제가 주요 연구 영역이 되고 있다. 주로 고등교육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 여부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학습자의 自己評定(self-assessment)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경향이 주요한 조류라고 볼 수 있다. 아울

러 교수 조직, 이수 과목의 선정 및 직업교육에의 적용, 학습자의 성취 여부에 대한 검증 및 학습자의 학습에의 介入 수준 측정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고등교육 학습자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그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연구들은 高等教育 기관에 재학중인 학습자의 변인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연관된 自己主導的 學習技法이나 학습의 質的 向上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이 안고 있는 입시 지옥의 문제라든지 과잉 학력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미국 고등교육계의 이러한 경향에서 좋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의 병폐라 할 수 있는 강압적 학습의 문제라든지 맹목적, 학력지향적 풍조의 개선에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비제도적, 무형식적인 학습자 중심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질' 관리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의 自律的인 학습을 보다 신장시킴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든 學習者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학습 욕구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1980년 이후 '미국 교육의 위기'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교육이 주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써 '학습하는 사회(learning society)'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社會 전반에 걸친 '탁월성'의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요한 영역의 하나로서 고등교육의 학습자 중심의 대개혁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주로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비제도적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단순히 '탁월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 즉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 in education)의 수행과도 유관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의 연구 동향으로서는 고등교육과 사회적 욕구를 연계하고자 하는 고등교육-산업체 연

계 프로그램 개발의 動向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동향은 어떤 측면에서는 개념에 있어서 두번째의 비제도적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의 동향이 주로 학습자의 자율성에 입각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비제도적 성향을 그 특성으로 갖는데 반해 세번째의 연구 성향은 고등교육의 기존 체계를 더 보강하는 연구 접근이라 볼 수 있다.

대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실현(social actualization)과 개인적 자아 실현(self actualization)으로 구분하여 볼 때 기존의 기능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실현을 강조한 반면 개인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는 비교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갈등론적 입장에서도 개인적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듯한 느낌 또한 배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세번째의 연구 동향은 사회적 실현과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분히 발전교육론적인 입장에 터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체—고등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동향은 보수적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 동향이지만 비제도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 동향과 상호보완적 또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 경향과는 달리 기존의 고등교육 체계나 제도를 산업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토록 실제적인 기능과 이론적인 기초를 상호 연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비제도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 동향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습자 중심 학습 프로그램이나 자아주도적 학습을 위한 모델 개발에 주된 관심을 갖는데 반해 산업체—고등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동향은 대학에 설정된 기존의 프로그램과 산업체의 욕구를 연계코자 하는 연구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대개 社會의 人力 수급과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인 양성이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첨단 기술 영역의 산학협동 체계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한 고등교육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경향이라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국가 발전에의 기여라든지 高等教育의 社會的 機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 혹은 경제 개발과 관련지어 전문인 양성 교육을 위한 산업체와의 共同研究나 共同學位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에도 미국 고등교육의 역할이 국가 발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흔적이 많은데 근래의 이러한 고등교육 연구 동향은 역사적 흐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일부 언급된 바대로 '교육의 책무성'이나 '교육의 자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產學協同體系의 확충을 위한 시도는 고등교육 개혁의 한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교육의 국가적 위기'에 관한 보고서에서 위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몇 가지가 지적된 바 있다. 이 중 기업인과 군 관계자들로부터 제시된 첨단 기술 인력의 부족이 한 요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첨단 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분야로서는 光學, 로버트 산업, 컴퓨터와 컴퓨터의 활용 장비 관리 분야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에너지 공학, 식품 관리 영역, 건강 분야 및 의료 공학(medical science) 영역 등이 이에 속한다. 대개의 경우 산학협동의 좋은 예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가 방위법'에 따른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책이다. 국가 방위법에 따른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책이란 방위 산업과 관련된 특정 영역의 산학협동 체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과 대기업체 부설 연구 기관과의 연계 체제가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적 특성과 영역의 선별이 신중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거액의 연구 지원 자금이 산업체로부터 고등교육기관에 투입되고 이러한 연구 기금을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적으로 新理論이 개발된다. 물론 이러한 新理論은 실질적 생산에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은 미국 고등교육이 역사적으로 수행했던 국가 발전과 방위 안보에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일련의 연구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향은 물론 단순히 방위 산업과 관련된 것

만은 아니며 근대 대두되고 있는 교육에서의 新 소비자 개념(new consumer concept)이라든지 서비스 위주 교육 접근(service-oriented approach)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사회적 요구와 교육의 적절한 分化體系간의 조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3. 高等教育 동향과 社會的 조류

高等教育의 연구 동향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세 경향으로 요약 검토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동향과 개혁의 움직임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변동들과 유관하다고 보여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

우선 최근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들이 다음의 몇 가지 사회·경제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70년대 말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中等教育에 관한 개혁, 이른바 '효율적 학교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 학교 운동의 기본은 이미 지적한 바대로 교육의 탁월성과 학습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中等교육의 탁월성을 성취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교육을 국가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된 바대로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의 그 기본 또한 바로 교육의 탁월성에 터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 중의 한 조류가 기초교육의 강화, 전문인 양성 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사회적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변동은 크게 인구의 변동이나 문화 및 가치의 변동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포괄적인 흐름으로 논의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우선은 '성인사회'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인구는 4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할 때 반이 넘는 인구가 성인이 될 것이므로 이들의 사회 전체에 미치는 규범적·가치적 관점에서의 영향은 심각하리라 본다. 특히 고등교육 학습자로서의 이들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고등교육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의 의미는 '교수(instruction)'에서 '서비스' 중심의 특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겠다. 앞서 약간 언급한 바대로 삶의 개념 또한 위계적·수직적 관점에서 융합적·수평적 관점으로 변모함으로써 종래의 전통적·획일적 대학교육 형태만으로써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등교육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서 이러한 개혁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세번째는 사회 전체에서 전반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탁월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경향은 특히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측면에서부터 경제적인 측면 혹은 경영 및 행정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미국내에서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전반적 경향이 어떻게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고등교육의 주요 연구 경향 또한 '고등교육의 탁월성'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의 탁월성 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경향들은 '고등교육의 질'이나 '고등교육의 평가'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라 볼 수 있다. 1986년의 미국 고등교육학회의 연차 총회의 주제가 '고등교육의 평가'에 대한 것 또한 이러한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네번째의 동향은 공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 또는 불신의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향은 효율적인 개인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가에 대해 그 요인을 분석 검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여부가 대학교육의 질 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 究明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으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대학 전체의 學習風土에 관해 검증하려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또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학생의 질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 예로서 대학 입학생들의 SAT

점수 비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Solomon(1986)의 연구를 보면, 1975년과 비교해 볼 때 1983년 입학생들은 어휘력과 수학 점수를 합해서 15점 정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의 국가적 위기에 관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Sputnik 쇼크가 있었던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에도 근래의 학력이 더 낮다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영향으로 자연히 학생의 질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과 학생 생활, 대학생의 지도 및 상담 문제, 학생 발달 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대학 풍토와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을 띤 것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경향들은 모두 대학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회의와 불신을 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다섯번째는 고등교육기관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개혁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개혁 운동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자체내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탁월성', '자율성',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것들로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들을 개발하려는 연구 동향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평가는 미국대학교육협의회(AAC)의 '85년 보고서에서 잘 지적된 바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⁵⁾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학부교육의 평가 절하 현상과 재학생의 감소라든지 사회적인 책무성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teaching)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와 교수의 책임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 교과과정에 관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대체로 교수 목표와 학생들의 욕구 진단, 기대되는 학습 성과와 관련된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의미의 재정립과 인식에 대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경향은 실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 중심 학습의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문제 중심 학습' 모델을 개발, 실제 임상이나 학습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는 하나 이러한 동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연구는 교수 개발에 관한 것들로서 대개 교수 중심, 학습자의 상호 작용 중심, 개인 중심 및 경험적 교수 방법 등이 연구의 주요 대상들이라 볼 수 있다. 교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많은 대학의 경우 자체내의 교수 개발을 위한 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教授(teaching)의 질을 관리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복합적인 노력이다. 대학에서의 교수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들은 교수의 사기 진작에 관한 연구, 교수의 강의와 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교수의 강의와 학습 자료에 관한 연구 또는 고등교육 풍토와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포괄적인 영역을 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내에서 일고 있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지적된 바 있는 모든 동향들이 이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체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동향이 어떤 면에서 더 진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동향의 주된 흐름을 고등교육 스스로 결정한다고 여겨진다. 세 가지 관점의 연구 동향은 학생의 질 관리와 개발 문제, 교수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고등교육 체제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가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여도가 무엇이며 고등교육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검증하려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의 교육 자원을 어떻게 極大化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5) 이 보고서는 *A Report to the Academic Community*라는 제목으로 학부교육의 의미와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에서 출간된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앞서 논의한 동향과 상호 무관한 것은 아니나 초급대학 혹은 전문대학의 사회·국가적 기여에 대한 재인식의 움직임이다. 물론 종래의 입장이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대응책이라 보여진다. 특히 미국내의 기술 산업 구조의 변모에 따라 중급 인력의 수요가 더 절실하게 됨으로서 종래의 지역 사회 대학의 특성을 모면하기 어렵던 2년제 대학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즉 인력 수급의 주요 공급원으로 역할 변모를 요구 당하고 있다는 경향이다.

또 다른 경향 등을 대충 열거하면 대학원과 전문인 양성 교육의 효율화 방안, 학생 권익과 교수 권익에 관한 연구 및 국제교육에 관한 연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국제교육 부문은 국제화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감안하여 대다수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자체내에 국제교육과 관련된 부서를 두고 국제 교류와 국제 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설정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또는 학부의 고학년 과정에서 국제교육과 관련된 과목들을 설강하고, 또 국제 이해와 인류의 공통 과제 및 문제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에 속한다.

4. 結 論

미국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들은 현재 미국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대적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주지된 바대로 후기 산업 사회 혹은 미래지향적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은 고등교육의 탁월성과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부응한 연구 동향들이 현재의 미국 고등교육 연구의 조류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 대두되고 있는 보수주의적 경향과 급진적 교육이데올로기의 갈등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음미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한마디로 인간화 과정 기관(human-processing agency)이므로 변화를 겪고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변화를 받고 있는 사회를 場으로 함으로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추세가 그 조류가 됨은 당연한 이치이다.

앞서 논의된 여러 傾向과 더불어 앞으로의 고등교육 연구 동향과 관련된 전망을 위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흐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회 전반적 변동과도 유관한 교육과 관련된 변화들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는 '교수'를 강조하던 관점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의 변화이다.

두번째는 '教育主權', 즉 제도적·법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教育人權', 즉 학습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학습 가능성의 개발과 이를 위한 학습 지원에 역점을 두는 견해로의 변화이다.

세번째는 '교육전매(educational monopoly)'의 개념으로부터 '교육 무정부주의(educational anarchism)'의 관점으로서의 변화이다. 이는 보다 무형식적·비제도적 교육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교육이나 전통과 관습 및 전수된 가치에 대한 가치와 문화 전수의 교육보다는 적응 위주의 現世 教育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다.

네번째는 직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직업주의적 관점에서 한 인간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주의' 관점으로서의 변화 경향이다. 이러한 교육관의 변천에 따라 고등교육의 의미도 종래의 학벌 위주나 학위 내지는 직업 선별 위주의 기능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결부된 개인적 차원의 선택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대학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경제 발전이나 취업과 관련된 학과의 설정, 교과과정의 편성 등의 도구적 학문의 성격이 퇴조할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순수 학문이 아닌 응용 위주의 기술적·도구적 학문의 괄목할 만한 퇴조 현상이 예측된다고 본다.

다섯번째는 교육 행정의 '集權化' 관점에서 '분산화(decentralization)'의 관점으로서의 변모이다. 왜냐하면 학습의 목표 설정과 모든 학습 장면 설정 및 평가의 차원에서까지 학습자의 의사 결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分散化의 傾向은 단순히 행정 체제에서만 아니라 커리큘럼이나 학습 장면 설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學習體系 전

만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연구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서 '강단교육학'과 '실천교육학'의 조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양적 방법론에만 치우치던 연구 경향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 경향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종래의 '강단교육학'이 이론적·해석학적 또는 이상적 접근이었던 특성인데 반해 '실천교육학'은 보다 실제적·경험적 또는 적응적인데 그 특성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단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흐름이 '강단교육학'과 '실천교육학'의 바람직한 조화를 요구하므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 적응 위주의 고등교육의 경향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문제, 특히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내용적 측면에 관한 주제들이 주관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주관심 분야가 사회 변화와 직업 변동 및 인간 가치의 변모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 학습자의 변인이 다분히 사회·경제·문화적 속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커리큘럼 설계과 이와 관련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주요한 경향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 자원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학습자원센터'와 관련된 연구도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컴퓨터나 전자 통신 체계와 관련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비단 대학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혹은 취미 중심 커리큘럼의 개발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될 것이므로 학생 복지, 학생 관리, 학습 관리(learning management) 등도 주요한 영역으로 수용될 것이다.

대개 최근의 미국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들은 고등교육 학습자의 학습 지원을 위한 모든 제도적·내용적·환경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7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교육 전반에 관련된 개혁의 영향도 있으나, 경제 구조의 불가피한 재편성이라든지 인간성의 몰락에서 비롯된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대검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개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오늘날의 미국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사회적 요구이며 고등교육기관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사회 개혁 및 창조적 기능을 그 우선으로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오늘날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은 특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高等教育의 無用論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고등교육이 사회 개혁 및 진보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의 역작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래의 미국 고등교육의 연구나 개혁의 동향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의 최근 노력의 결과는 미국 고등교육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고 일반이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개혁이나 연구 동향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고등교육은 사회적 선발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인간 성숙의 주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현재도 강압적 사회화의 제도로서 혹은 대표적인 도구적 교육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사회나 가치의 변동에 따른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